

원산지 표시	쌀(백미, 흑미, 현미, 잡쌀)	소고기		돼지고기	닭고기	오리고기	배추김치		콩			수산물	
		국내산	수입산				배추	고춧가루	두부류	콩국수	콩비지	동태/명태	
		산	한우/육우/젓소				산	산	산	산	산	산	산

1. 월령별 이유식 조리

구분	이유식 초기(4~5개월)	이유식 중기(6~8개월)	이유식 후기(9~11개월)
죽의 농도	곱게 갈아 만든 8~10배 죽, '주르륵' 흘러내리는 묽은 스프 정도의 농도	덩어리진 형태의 6배 죽, 부드러운 덩어리가 약간 있으며 '뚝뚝' 떨어지는 묽기	밥알의 형태가 있으면서 잇몸으로 으깰 수 있는 묽기
재료	불린 쌀 20g, 물 200ml	불린 쌀 20g, 물 100ml	불린 쌀 30g, 물 90ml
제공 형태	미음, 채소즙, 과일즙과 같은 유동식	죽 또는 으개거나 같은 반고형식	무른 밥 형태의 고형식
조리	소금, 설탕 등 조미료는 후기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		
	10배 미음(불린쌀:물=1:10)	7배 죽(불린쌀:물=1:7)	5배 죽(불린쌀:물=1:5)

2. 월령별 이유식 제공 종류 및 형태

구분		이유식 초기(4~5개월)	이유식 중기(6~8개월)	이유식 후기(9~11개월)
제공 횟수		간식 개념으로 1일 2회 제공	주식으로 1회, 간식으로 2회	주식으로 2회, 간식으로 2회
분량		1작은 스푼 ⇒3큰술로 점차 늘림(55g)	이유식 90g/1회, 간식 소량	이유식 145g/1회, 간식 소량
형태	채소류	매우 잘게 다진 상태	잘게 다진 상태	사방 0.3cm 크기로 찢 상태
	육류	삶아 곱게 다져 끓인 후 고운체에 내린 국물이나, 믹서에 갈아 거른 국물 상태	삶아서 사방 0.3cm크기로 찢어 믹서에 으갠 상태	삶아서 사방 0.3~0.5cm크기로 찢어 작은 덩어리가 있는 상태
	어패류	-	살만 발라 삶아 사방 0.3cm크기로 찢어 절구에 으갠 상태	살만 발라 삶아 사방 0.5cm크기로 찢 상태
	난류	-	완숙으로 삶아서 노른자만 체에 내린 상태	노른자만 풀어서 사용하거나 완숙 노른자를 약간 덩어리지게 으갠 상태
식재료		· 곡류: 쌀, 찹쌀부터 사용 · 기름기 적은 부위의 쇠고기, 닭고기 · 채소류: 감자, 고구마, 애호박, 단호박, 브로콜리, 오이 · 과일류: 사과, 바나나, 배	· 기름기 적은 부위의 쇠고기, 닭고기 · 어패류: 흰살생선 · 난류: 달걀노른자(완숙) · 콩류: 두부, 삶아서 으갠 완두콩, 강낭콩, 검은콩, 대두 · 채소류: 너무 질기거나, 향이 강한 채소는 제외	
제공 방법		· 쌀미음부터 시작 · 채소, 과일류는 점차적으로 제공하고 채소부터 시작 · 3~4일 같은 식재료를 활용한 미음을 제공하여 식품알레르기 반응에 유의	·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체내 철분 저장량이 고갈되기 시작하므로 철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분이 풍부한 단백질식품(쇠고기 등)을 선택 · 새로운 식품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추가 · 쇠고기, 닭고기, 흰살생선, 달걀노른자, 두부가 단백질식품으로 적합	· 채소·고기류: 잘게 잘라 조리한 형태로 제공 · 과일류: 잘게 자르거나 퓨레로 제공 · 수저 사용 및 핑거푸드 제공
주의 식품		· 시금치, 배추, 당근, 비트는 질산염으로 인한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6개월이전에 사용 시 주의 · 섭취 금지: 돼지고기, 어패류, 난류, 콩류, 해조류, 우유 및 유제품, 견과류	· 우유는 조리의 일부 재료로 가열하여 사용	· 영아용 치즈, 플레인 요구르트는 8개월 이후부터 사용 · 잘게 찢 면, 구운 식빵, 으갠 음식 제공 가능
알레르기 식품		· 견과류, 딸기, 토마토, 복숭아, 생우유, 꿀, 키위, 달걀흰자 등의 식품 사용은 둘 전까지 제한함 ▶ 알레르기 유발 식품 19종 ① 난류(가금류에 한함), ② 우유, ③ 메밀, ④ 땅콩, ⑤ 대두, ⑥ 밀, ⑦ 고등어, ⑧ 게, ⑨ 새우, ⑩ 돼지고기, ⑪ 복숭아, ⑫ 토마토, ⑬ 아황산류, ⑭ 호두, ⑮ 닭고기, ⑯ 쇠고기, ⑰ 오징어, ⑱조개류(굴, 전복, 홍합 포함) ⑲ 잣		
▶ 식단 이용 시 안내 사항				
·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, 해당 이유식을 중단하고 다른 이유식으로 대체합니다 · 영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같은 개월이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개인별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이유식을 진행합니다 · 설탕, 소금 등의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				

